

Space Syntax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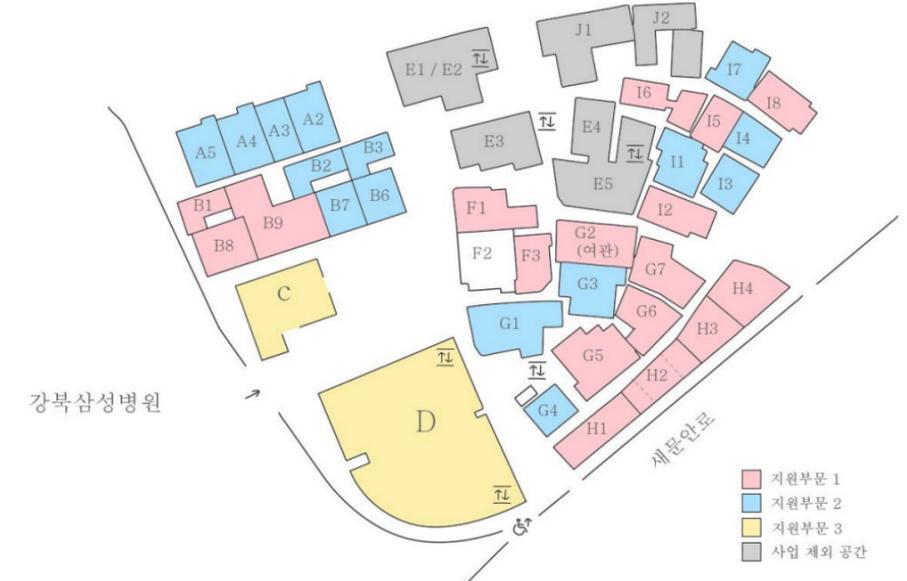
상업/주거 골목에서 전시장으로 - 돈의문 박물관 마을



Special Seminar in Spatial Analysis | Spring Semester, 2018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 2018-22273 Seungjae Kang

연구 배경 건물 개요



‘돈의문박물관마을’(면적 9,770㎡)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건물 30여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방식으로 조성한 역사문화마을이다. 경희궁과 강북삼성병원 사이에 위치하며, 작년 9월 ‘서울비엔날레’와 함께 첫 선을 보였다. 마을 내부에는 문화산업의 플랫폼이 될 ‘도시건축센터’와 돈의문지역의 역사와 도시 재생 방향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이 건립되었다.

- 위치 : 종로구 송월길 14-9일원
- 규모 : 대수선 10개 동, 증축 및 대수선 26개 동, 철거 후 개축 2개 동, 철거 후 신축 3개 동, 한옥 이전 2개 동 등 43개 동
- 총 시설면적 : 9,770㎡ (문화시설 9,042㎡, 소공원 727㎡)
-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중 <주제전> 전시장으로 활용 후 문화시설 등(별도계획에 따라)으로 활용될 예정

연구 배경 이슈들: 도시 맥락을 국가 주도로 유지한 좋은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돈의문 박물관마을] 옛것 살리고 새것은 더하고...100년의 시간 간직한 추억마을

이혜진기자 | 2018-01-31 17:11:29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도시의 기억을 지켜이 담고 있는 오래된 골목길과 집들이 낡음을 덜어내고 말끔한 모습으로 복원돼 있다.

건축개요

위치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7 (신문로2가)

용도 건축전시관, 부대시설, 편익시설

규모 대수선 10개 동, 증축 및 대수선 26개 동, 철거 후 개축 2개 동, 철거후 신축 3개 동, 한옥 이전 2개 동 등 43개 동

총 시설면적 9,204 m²

사대문 안의 첫마을, '새문안마을'은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들어서는 이곳에는 도시의 기억을 지켜이 담고 있는 오래된 골목길과 집들이 낡음을 덜어내고 말끔한 모습으로 복원돼 있었다. 지난해 임시 준공상태에서 건축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된 후 현재는 일부만 전시장과 세미나시설로 개방돼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정식 오픈을 위한 준비공사가 강추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돈의문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던 부지다. 재개발 기부채납 용지는 보통은 공원이거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조성되기 마련인데 서울시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문화시설을 넣는 도심재생방식으로 개발방향을 잡았다. 김남형 건축사사무소기오현 소장은 "이는 역사성 등을 무시한 채 기존 건물을 싹 밀고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피맛골 개발이다. 무참하게 조선시대 역사 유적뿐 아니라 근현대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품고 있는 골목길을 밀어버리고 세운 거대한 오피스텔에는 '피맛골'이라고 쓴 웅졸한 간판 하나만 달랑 남았다.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이 또 다른 피맛골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박물관마을 조성이 결정됐다.

연구 배경 이슈들: 걸치레식 보존에 실용성도 떨어지는 나쁜 도시재생?

‘유령 마을’된 돈의문 박물관 마을

· 서울시와 종로구의 소유권 분쟁... 임대 차질 빚어 활용 못하고 썰렁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봄바람을 느낄 수 있었던 4월 18일, 평일임에도 도심 명소라면 방문객의 발걸음이 제법 있을 법한 날이었지만 서울 종로구 송월길에 있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예외였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동네의 정취에 창조적 감각을 더해 조성한, 마을 자체가 박물관인 마을’이다. 이곳에선 2017년 9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며 한때 방문객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비엔날레가 끝난 후 찾는 사람들이 뜸해진 상태다.



인근 빌딩에서 내려다 본 돈의문 박물관 마을 전경. 한낮임에도 인적이 드물어 ‘유령 마을’ 같다. / 우철훈 선임 기자

이날도 마을 구경에 나선 방문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가끔 마을 골목길을 지름길 삼아 광화문이 나 서울시교육청으로 가는 행인들만 한두 명씩 눈에 띄었다. 마을의 중앙광장은 오가는 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당초 유스호스텔로 쓰려고 지었던 번듯한 여러 채의 마을 내 한옥들도 상당수가 굳게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복삼성병원과 마을에 인접한 빌딩 건물들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에 비하면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사실상 ‘유령 마을’에 가까웠다. 서울시가 도심 명소로 야심차게 조성했던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박물관마을에서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곳은 단연 신식 한옥이 밀집한 곳이다. 원래 있던 한옥은 전부 철거되고 기단석 등 일부 자재만 쓰였다. 재개발 전에 이 자리에서 삼계탕 식당을 운영했던 권금순 씨(63)는 “보존해야 할 곳은 얽어버리고 안 해도 되는 곳을 보존해 놔다. 그럴 거면 차라리 수리를 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 장사하게 해 주지”라고 말했다.

보수와 철거를 가른 기준에 대해 박물관마을 조성을 총괄하는 이광백 주무관은 “단열, 내구성, 내진 등 안전에 있어서 현행 규정상 문제가 있는 곳은 보강했다”고 말했다. 건물의 보존 가치와 관련한 기준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건물의 역사·문화적인 의미가 아닌, 건축 법규가 철거냐 보존이냐를 결정지었다는 소리다. 서울시가 박물관마을 내 건물에 유스호스텔, 공방, 식당 등 상업 공간을 입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간의 외형과 의미뿐 아니라 기능까지 모호한 모습이다.

질문과 가설

전시장으로 '박물관 마을'? : 골목

- 기존에 상업 골목이었던 박물관 마을 부지의 골목들은 공간형태로서는 전혀 변하지 않음
-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옛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끌리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전시공간의 등장에 당황함
- 일부 골목 사이사이에는 전시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음.
- 골목은 지나가는 곳일까 관람하는 곳일까? 기존의 용도(상가/주택)와 달라진 용도(전시/체험)로 사용될 여지는 있는 것일까?



더 이상 생활 세계에 현존하는 환경이 아니라 '상실된 것' 혹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노스텔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유년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노스텔지어는 골목길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이 배어 있는 '장소'로 기억하게 한다(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2016: 113-115)



질문과 가설 전시장으로서 '박물관 마을'?: 주택

-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있지만 특히 담으로 둘러싼 마당이 있는 집들이 주목됨
- 주택 또는 상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입구를 통해 나오는 형태
-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하거나, 계단을 올라가면 다시 그 계단을 통해 내려와야 다른 전시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개조한 주택과 상가는 기존과 다른 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는 공간은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집 같은 편안함'이라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크리스티안 미쿤다, [제 3의 공간]200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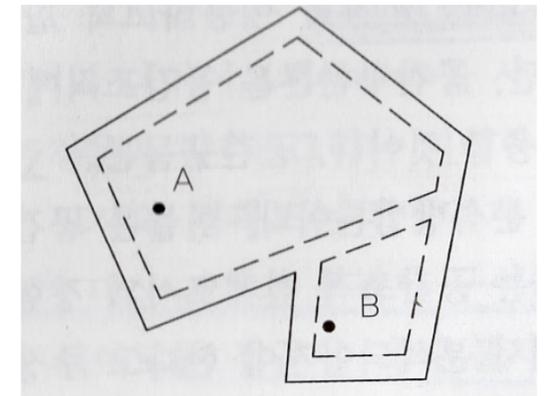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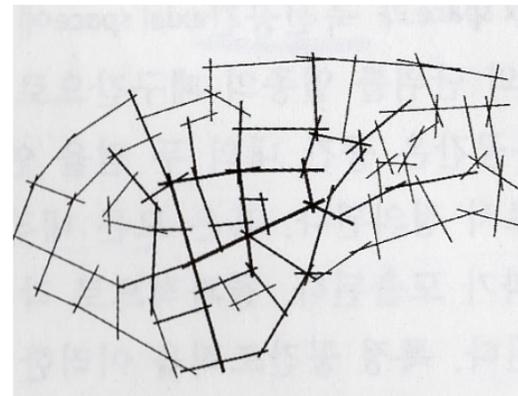


질문과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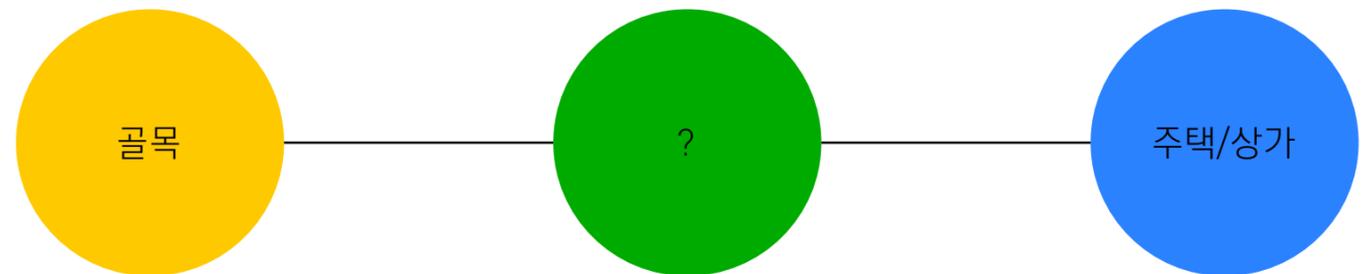
가설: 블록공간도/축선공간도



- 새로운 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 혹은 기존 방식의 응용이 필요
- 다층적이고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전시공간(ex. 한옥의 마당, 골목 등의 외부에도 전시)
- 실내에 주로 사용되는 블록공간도, 실외에 주로 사용되는 축선공간도
- 얼핏보기에는 블록공간도와 축선공간도의 혼합이 필요해 보임
- 실제 실험을 거치면 두 가지 방식 사이의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또는 ERAM의 가중치 적용을 통해 실제 전시(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때의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석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는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박물관 마을의 이후 용도에 관해 고찰한다.



가만히 걷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햇빛
이마저도 너무 멋스러워서 골목 걸기가 새로운 재미를 가져오는 듯 해
심오한 작품을 만나지 않더라도 여기 걷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서울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과 가설 가설: 볼록공간도/축선공간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준들

1.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구분
2.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구분
3.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던 공간/전시가 이루어지면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에 가중치 적용
4. 넓거나 좁은 골목에 가중치 적용

비교를 위한 기준

- 최근의 전시는 공간 체험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함
 - 작가에게 다양한 공간이 제공될수록 다양한 작업이 나올 가능성 높음
- => 골목과 주택/상가 사이에 존재하는 층위의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통합도와 전시의 배치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